

충남마을기행

당진 푸레기마을



갯벌 체험과 약쑥 찜질로 유명한

당진 푸레기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 풀잎 하나가 떨어져 만들어진 섬마을

왠지 이름만 들어도 친근하고 정겹게 느껴지는 마을이 충남 당진의 최서북단에 있다. 바로 푸레기 마을이다. 원래는 섬이었지만 80년대 대호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연육되어 지금은 행정상 초락도리에 해당한다.

필자만큼이나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가 궁금해 하는 마을이름의 유래! 여러 의견이 분분하나 초락

도(草落島)는 풀잎 하나가 떨어져 섬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가장 우세하다.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래가 가장 아름답고 이뻐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푸레기는 지푸라기의 변형된 말로 해석된다.

당진IC에서 30분 정도 들어가면 도착하는 푸레기마을은 대호방조제 너머로 펼쳐진 서해바다와 대호만 호수, 삼봉저수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울창한 숲과 자연 송림이 잘 가꾸어져 있고 1



급수에만 산다는 가재가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해 태풍으로 쓰러진 송림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되었다고 한다.

푸레기마을은 정부가 인증한 녹색농촌체험마을(2006)이자 팜스테이 지정마을(2009)이다. 현재 198가구, 820명의 적지 않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중 18%인 367가구가 마을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박 시설과 마을 특산물인 약썩을 재배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약썩작목반과 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공동식당에서 단체손님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갯벌체험과 약썩찜질로 유명세

필자가 찾아간 날은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원당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갯벌체험과 견학활동을 하러 60여명이 방문했다. 알고 보니 이곳 푸레기마을 발전을 위해 1사1촌 협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 마을봉사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체험객이 오기 전 미리 푸레기마을을 이끌고 계신 홍성직 추진위원장(64세)과 윤용숙 사무장(42세)을 만났다. 홍 위원장은 푸근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로 필자를 편하게 맞아주셨고, 윤 사무장은 무척 활달하고 대화 내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아 필자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분이셨다.

홍 위원장은 이곳 출신으로 이장직을 맡으시다 마을사업에까지 뛰어들게 되었다고 하시고, 윤 사무장은 성격답게 한 마디로 시집 잘못와서..'란다.

“처음 체험마을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건도 좋지 않았고 마을주민 간 갈등도 많았다. ‘그냥 편히 살수도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 등등... 하지만 오랜 세월 한 마을에서 얼굴 부비며 산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니 점차 문



〈푸레기마을 홍성직 위원장, 윤용숙 사무장, 당진화력본부 홍장길 홍보담당 - 오른쪽부터〉



〈푸레기마을을 방문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가족〉



〈원당초 3학년 허다원, 조서연, 동자영 양 - 왼쪽부터〉

제는 해결되었다.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말이다.”라고 홍 위원장은 그 당시를 전했다.

푸레기마을의 대표적인 체험으로는 사시사철 가능한 ‘갯벌체험’과 ‘황토 약쑥찜질체험’이 있다. 이외 ‘달구지 햇빛촌 동물농장 견학’과 ‘전통음식체험’, ‘농산물 수확체험’ 등이 있다.

이중 ‘약쑥이’가 가장 유명한데, 연간 40톤을 수확해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특히 약쑥찜질방은 전국에서 연간 6천명 이상이



〈약쑥으로 생산한 제품들〉



〈동물농장 안내표지판〉



〈동물농장에서 키우는 사슴〉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2년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또한 이 약쑥을 이용해 뜸, 좌욕, 약쑥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고, 이를 상품화한 제품 판매를 통해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갯벌체험은 바지락 캐기가 주종인데, 자연 그대로의 갯벌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노력한 만큼의 양을 얻을 수 있다는 성취감과 남녀노소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추천했다.

‘달구지 햇빛촌 동물농장’은 선생님 한 분이 퇴임 후 고향에 내려와 취미생활 하듯이 사부작사부작 시작한 것이 어느덧 마을주민과 방문객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감동을 주는 아담한 동물농장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닭, 오리, 사슴, 개, 염소 등을 키우고 있었고 한견에는 작은 호수도 꾸며놓아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할 만 했다.

그리고 전통음식체험은 이곳에 귀농하신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청국장, 고추장, 된장, 들기름, 조식간장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시작한 체험으로, 특히 ‘청국장 쿠키’는 매우 호응이 좋다고 한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청국장과의 만남에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고 웰빙 푸전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고 한다.

홍 위원장은 “당일코스도 인기가 있지만, 1박2일 혹은 2박3일 코스도 문의가 많다.”면서 “푸레기마을만의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변 ‘영전마을’ 등과 연계해서 마을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달콤 짭조름한 갯벌체험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백문이 불여일견’, 본격적으로 ‘갯벌체험’에 나서보자.

갯벌체험을 위해서는 푸레기마을에서 약 15분 정도 대호방조제를 지나 도비도해양체험관이 있는 바닷가까지 나가야 한다.

이 갯벌체험은 뽀니뽀니해도 윤 사무장의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압권이다. 드넓은 갯벌 안에서 단체 체험객을 통솔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였으나, 사무장의 목소리는 위원장이 확성기로 말하는 것보다 더 우렁찼다.



〈갯벌체험에 쓰일 호미와 장갑〉



〈갯벌체험에 앞서 안전교육〉



〈도비도해양체험관 갯벌로 이동〉



〈갯벌체험 현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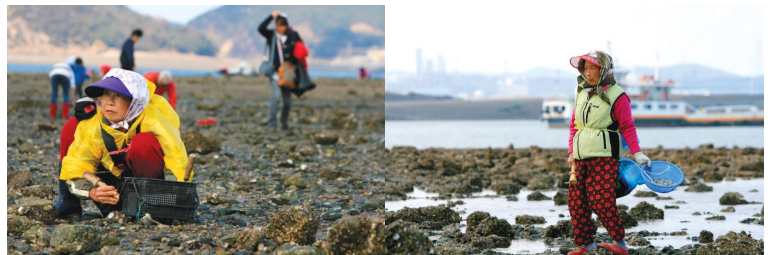
이날 함께 온 당진화력본부 가족들에게 바지락을 켈 호미, 그리고 그물망과 장갑을 나눠준 뒤, 갯벌체험에 나섰다.

처음에는 다들 어떻게 캐는 건지 서투른 모습이었지만, 10여분이 지나자 누가 더 많이 캐냐 내기라도 하듯이 갯벌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윤 사무장은 “보통 갯벌체험은 오전 밀물 때를 맞춰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후 점심식사를 한다.”면서 “오후 일정은 주로 마을에서 약쑥체험 등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말했듯이 바지락을 주로 캐지만 굴도 나오고 운이 좋으면 낙지도 건질 수 있는데, 이날 체험객 모두 합쳐 낙지는 1마리만 잡혔다. 그것도 초등학교생이.

필자는 언제부터였는지 미리 갯벌에 와서 바지락과 굴을 캐고 있는 할머니 한분께 다가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입가에 살짝 웃음을 보이며 갯벌에서 갓 캔 굴을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하셨다. 사실은 옆에서 계속 입맛을 다시며 침을 삼켰던게다. 제가 보낸 무언의 텔레파시에 할머니는 그렇게 되받아주셨다. 그나저나 그



〈삶의 현장인 갯벌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의 모습〉

굴맛은 필자가 그동안 먹어본 그 어떤 굴보다 정말 맛있고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바다의 맛이 있다면 바로 이 맛이 아닐까 생각했다.

필자가 할머니에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쭙자 ‘식구들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물 빠졌을 때만 일하니까 괜찮다.’고 하신다. 그리고 보니 갯벌에는 체험에 참가한 일행 이외에 할머니들의 모습이 많았다.

필자는 순간 이곳이 체험객 놀이터가 아닌 ‘체험 삶의 현장’이란 생각이 들었다. 갯벌에 바닷물이 들이차야만 허리를 펴시는 할머니의 농장 말이다. 솔직히 체험객을 향한 카메라렌즈보다 이곳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것이 더 따뜻하고 진솔했다.

모든 갯벌체험을 마치고 나온 체험객들의 손에는 그물망 한 가득 바

지락이 가득했고, 마치 만선(?)의 기쁨을 자랑이라도 하듯 모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필자는 점심식사 후 체험객 일정(당진전력문화홍보관 견학)과는 별도로 다시 마을에 들어왔다. 차를 타고 마을을 둘러볼 참이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풍경은 내수면의 아름다운 습지와 갈대밭이었다.

푸레기마을을 빙 둘러싼 길은 봄이 되면 벚꽃으로 만발하고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인 산책로가 된다.



〈푸레기마을 종합안내도〉

푸레기마을의 밝은 미래 그리고...

홍 위원장은 “앞으로 마을길을 이용한 저전거길을 조성해 방문객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이야기가 있는 우리 마을을 둘러보게 할 참이고 또 앞으로 호안방조제 내수면에 선착장을 만들어 배를 타고 자연생태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마을 대표 전통주인 ‘송순주’를 당진의 대표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 송순주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2009년부터 찹쌀과 송순(소나무 애기잎)을 이용해 빚어온 민속주로서, 원활한 생산을 위해 소나무 2천 그루를 따로 심었을 정도, 역시나 원료의 원활한 공급이 관건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장 정비를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2012년부터 재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란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윤 사무장이 질세라 거든다. “지금 충남의 팜스테이 지정마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체험마을 소개 앱을 개발 중”이라면서 “기존의 대외 홍보나 입소문을 넘어선 더 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푸레기마을에 다녀간 체험객은 약 1천5백명, 1천만원 정도의 소득창출이 있었다고 한다.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윤 사무장은 “아직은 마을의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만 참여하고 있기



〈호안방조제 내수면〉



〈송순주 제조공장〉



〈마을 체험용 자전거〉

때문에 그 소득창출이 일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 이라면서도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함께 고향의 정을 나누고 동참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소신을 밝혔다.(그러면서 마지막 한 마디 보탠다... 나 말 너무 잘 하죠~ 호호호)

푸레기마을은 예로부터 비옥한 농토와 쾌적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개발과 보존이란 두 갈래 길에 있는 듯 보였다. 어찌보면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마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말했다. 여기저기서 마을사업 해보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마을 주민의 행복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해 마을 주민의 행복한 웃



〈푸레기마을의 비옥한 농토〉

음과 넉넉한 인심 때문에 체험객이 꾸준히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곳 푸레기마을은 안심이다. 일단 윤 사무장의 밝은 웃음과 활기찬 목소리가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위에 홍 위원장의 온화함과 죽이 잘 맞아 마을 주민과 함께, 그리고 같이 잘 꾸려나갈 것을 믿는다.

[푸레기마을 패키지 여행]

● 찾아가는 길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당진행 시외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 가면 당진터미널에 도착 후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초락도행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지방에서는 당진행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로 나와야 한다. 대호방조제 방향으로 오다가 삼봉사거리에서 초락도 이정표를 보고 가면 된다.(당진IC에서 약30분 소요)

▶ 주소 :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463-3번지(T.041-353-500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uregi.com

● 왜목마을

해가 뜨고 지는 마을, 바로 왜목마을이다. 서해안에서 바다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특히 마을의 뒷산 격인 석문산(79m)은 일출과 일몰의 중요한 포인트!

'열린충남'이 발간되는 시기에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 해돋이축제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찾는다.(12.31~1.1)

▶ 찾아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상행) 혹은 송악IC(하행)로 빠져나가 대호방조제 방향으로 약30분 소요

▶ 인터넷 홈페이지 : www.waemok.org

